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 기다림마저 있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뽕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쯤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6.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7. 다음은 한국 현대시 사전에서 ‘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발췌한 것이다. 위 시에 쓰인 ‘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한 해의 첫 계절, 입춘에서 입하까지의 절기, 봄은 일차적으로 ① 희망과 생성, 부활과 소망의 상징이다. 또 봄은 넘치는 생명력 때문에 ② 미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상징된다. 한편 늦봄의 황홀한 낙화는 ③ 성적(性的) 분위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봄밤의 정취는 ④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선경으로 비유되기도 하며, ⑤ 애상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8. 위 시를 내재적 관점에서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온다’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  
 ②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봄’은 민주화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  
 ③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거울로 느꼈기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시를 쓴 거야.  
 ④ 시인이 저항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주로 썼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위 시를 감상해야 해.  
 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시련도 언젠가는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봄을 기다리는 설렘이 담겨 있다.  
 ② ㉡ : 봄은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③ ㉢ : 봄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④ ㉣ : 봄을 맞이하는 감격에 겨워 나타나는 행동이다.  
 ⑤ ㉤ : 봄을 맞이하는 기쁨과 환희가 담긴 행동이다.

10.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상징을 통해 특정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④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  
 ⑤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1~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날, 박씨가 상공에게 말했다.

“제가 출가한 이후 오래도록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친을 찾아뵙고자 하오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규중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이 가 볼 일이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말리지는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를 해 줄 테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채비는 차릴 것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오니 번거로운 말씀 마십시오.”

상공이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나)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박씨는 집을 나섰다. 피화당 뜰에 나와 두어 걸음을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다. 잠깐 만에 금강산에 다다라 부친께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니, 처사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다.

“너를 시가에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하늘에 매인 바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너의 액운은 다 하였다. 앞으로는 네 앞날에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만 쉬다 가거라. 내 이달 십오 일에 너의 시택으로 갈 것이니라.”

(중략)

(다)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 앉혔다.

“너의 액운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친 뒤 말하였다.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을 짜 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 두거라.”

그러고는 딸과 함께 정당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공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공이 못내 섭섭해하며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한잔 술로 작별을 고하고 문밖으로 나가 전송하였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

시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공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니, 처사는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구름을 헤치며 나아갔다. 잠시 후 구름이 걷혔는데 처사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을 부려 허물을 벗었다.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계화를 불렀다. 계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가인(絶世佳人)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며, 그 태도는 너무도 기이했다. 월궁항아(月宮姮娥)나 무산 선녀(巫山仙女)라도 따르지 못할 듯했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이시백은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 간다. 병조 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우의정 벼슬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한다.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골대, 용울대 형제에게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으나 결국 항복한다. 박씨는 피화당을 침범한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

(라)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와 손에 옥 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부쳤다. 그러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쳤다.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에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다. 순식간에 피화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골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마한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구나. 이런 절통(切痛)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우리 임금이 장졸을 전장에 보내시고 칠 년 가뭄에 비가 내리지 못하니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뵈는단 말인가? 우리 재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

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길을 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 용골대가 모든 장졸을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박씨가 계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위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 오너라.”

(바)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계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 주겠다.”

계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 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神人)이 있을 것이니 이시백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 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조심하여 모셔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 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아)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애원을 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소장 아우의 머리를 내주시면, 부인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듣거라.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훔칠하여 두고 진양성에서 패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우리도 용골대의 머리를 내어 주지 않고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아무리 애걸을 해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그저 용골대의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도리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는데 박씨가 다시 용골대를 불렀다.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할 듯하니 의주로 가서 경업장군을 뵈고 가라.”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다. 경업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한들 이제 와서 어찌하겠는가?’

(자) 용골대는 박씨의 속내를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 이어 빼앗은 금과 은을 장졸들에게 나누어 준 뒤 세자와 대군,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박씨 부인은 무슨 재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타국에 잡혀가는가? 이제 가면 삶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인데, 어느 때 고국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리오?”

(중략)

[뒷부분의 줄거리]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극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뉘우치며 그녀에게 정렬부인의 칭호를 내린다. 박씨의 덕행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박씨는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린다.

- 작자 미상, ‘박씨전’

1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공은 박씨를 걱정하고 있다.
- ② 박씨의 친절은 금강산에 있다.
- ③ 박씨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④ 금강산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다.
- ⑤ 당시 결혼한 여성은 시댁의 허락을 받아야 친절에 갈 수 있었다.

12. 글 전체를 봤을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 ② 벼슬에 오르지 못하는 것
- ③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 ④ 여러 사람에게 모함을 받는 것
- 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13. ㉠과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닌 것은?

- ① 경국지색(傾國之色)
- ② 망국지탄(亡國之歎)
- ③ 설부화용(雪膚花容)
- ④ 화용월태(花容月態)
- ⑤ 단순호치(丹脣皓齒)

14. (나), (다), (라)에서 두드러지는 고전 소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면적인 인물의 성격
- ② 액자식 구성
- ③ 사건의 비현실적인 전개
- ④ 행복한 결말
- ⑤ 우연적인 사건의 전개

15. 윗글의 (바)~(아)는 실제 역사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 주기 위해
- ② 사대부 남성들의 무능력을 비판하기 위해
- ③ 여성도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 ④ 전쟁의 상처를 문학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 ⑤ 나라에서 치욕적인 전쟁의 결과를 왜곡하여 남기기 위해

16. 윗글에서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웅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한다.
- ② 독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 ③ 허구적인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 ④ 사건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 ⑤ 독자를 실감나게 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번역된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 느끼는 안락이나 단순한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를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르게 설명한다. 그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막스 뮐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에 시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막스 뮐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는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은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가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통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감각을 통한 향유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감각적 향유가 이성을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극단적 탐닉에 빠질 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감각적 향유 자체는 참나적인 것이므로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둘째,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성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으므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에우다이모니아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수시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역사적 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셋째, ㉡ ‘관조(觀照)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조’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 활동이나 부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영원불변한 진리를 학문을 통해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에우다이모니아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성을 갖는다.

뮐러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실현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모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순간성, 역사성, 영원성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이 세 가지 에우다이모니아를 함께 구

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17.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뮐러가 설명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서로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 ② 뮐러는 시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에우다이모니아를 설명하였다.
- ③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에우다이모니아를 얻을 수 있다.
- ④ 관조는 쾌락과 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혼의 활동이다.
- ⑤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 안락이나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극단적 탐닉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실현된다.
- ② ㉡은 감각적 차원을 넘어선 질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실현된다.
- ③ ㉠과 ㉡은 모두 이성의 발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정신을 배제한 신체적 감각을 중시하는 가치 판단을 전제한다.
- ⑤ ㉡은 ㉠과 달리 시간적 속성에 있어서 순간성이 아니라 영원성에 의해서 규정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김 씨는 고기가 정말 맛있어서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몫까지 다 먹어 버렸다.
- ㄴ. 이 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자주 했는데 불법 주차 근절을 홍보하는 주민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후 자신의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
- ㄷ. 윤 씨는 모든 공식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불변의 수학적 질서를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수학적 공식들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 ① ㄱ에서 김 씨가 고기를 모두 먹어버린 행위는 극단적인 탐닉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ㄱ에서 김 씨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고기를 나

누어 먹는다면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할 수 있겠군.

- ③ ㄴ에서 이 씨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원인은 주민 회의가 공동체의 훈육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겠군.
- ④ ㄷ에서 윤 씨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것은 궁극적인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ㄷ에서 윤 씨가 수학적 공식들을 활용하여 연구를 한 것은 수학 자체를 즐기기 위한 향락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

20. 밑줄을 읽은 학생이 ‘윌러’의 입장에서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디오게네스는 일체의 물질적 욕심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생활필수품만으로 살아가는 삶, 즉 자연에 따르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모든 사회적 관습이나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행복은 이와 같이 자유롭고 단순한 생활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 ① ㉠은 사회적 삶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을 간과하고 있군.
- ② ㉠은 단순한 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군.
- ③ ㉠은 인간이 이성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군.
- ④ ㉠은 역사적 상황의 끊임없는 변화를 인정하면서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군.
- ⑤ ㉠은 공동체 내에서 자유를 누린다면 물질적인 욕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군.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산업입지론이라 한다. 고전적 산업입지론에는 비용이나 수요 중 특정 요인 한 가지에 주목하여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설명하려는 최소비용이론과 최대수요이론이 있다. 하지만 비용과 수요 중 어느 한 요소만으로 공장의 입지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데이비드 스미스는 이 둘의 통합을 추구하며 준최적입지론을 제시하였다.

스미스는 자신의 이론을 총비용과 총수입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총비용이란 제품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인건비, 운송비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총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총수입이란 재화를 공급하여 생산자가 벌어들인 총액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최대화되는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총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총비용과 총수입을 모두 고려할 때, 총비용이 총수입보다 크면 손실이 발생하고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면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스미스는 총수입이 총비용과 ㉠ 같아서 더 이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지점들을 이윤의 공간적 한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공간적 한계의 범위 안쪽에서는 이윤이 최대가 되는 최적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공장은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준최적입지론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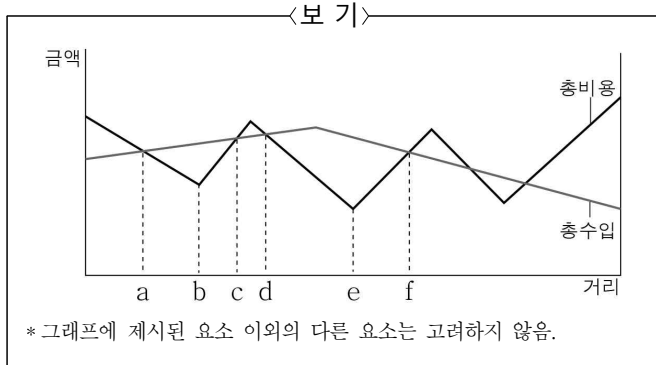
그는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인은 경영자의 경영 수완으로, 경영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생산비를 낮춘다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는 그 전보다 넓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적 보조금이나 세금 등의 요인을 들었다. 공장이 보조금을 받으면 총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특정 지역에서 공장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총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공장이 입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산 규모가 커지면 원료의 공동구입, 제품의 공동 판매 등으로 총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스미스의 이론은 비용과 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과, 이윤의 공간적 한계 내에서 최적입지 외에도 실제로 공장이 입지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산업입지론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1. 밑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수입과 총비용의 개념
- ② 준최적입지론이 갖는 의의
- ③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변화되는 요인
- ④ 최소비용이론과 최대수요이론의 형성 과정
- ⑤ 최적 입지에서의 거리에 따른 총비용의 변화

22. <보기>는 거리에 따른 총수입과 총비용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 스미스의 이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c사이 어느 곳에 공장을 세우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군.
- ② a에 공장을 세운다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에 공장을 세웠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d에 공장을 세운다면, c에 세웠을 때보다 총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윤이 더 적겠군.
- ④ e에 공장을 세운다면, b에 공장을 세웠을 때보다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가 더 크겠군.
- ⑤ e에 세우려던 공장을 e와 f사이에 세우려고 할 때 f에 가까워질수록 총비용은 늘어나겠군.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구를 생산하는 A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지역 내 공장에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전을 고민하던 A 공장은 현재와 수요가 동일한 ㉠ 지역 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역 자치 단체에서 공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과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영자는 A 공장을 이전하면서 경영 수완을 발휘하여, 생산 비용의 5%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① A 공장이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추가 부담금 때문에 총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 ② A 공장이 ㉠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경영 수완을 발휘하여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③ A 공장이 ㉠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세금 감면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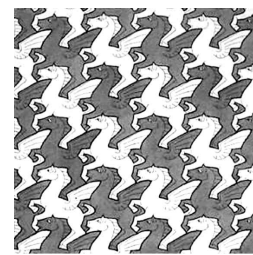
- ④ A 공장이 총수입이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공장의 입지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 ⑤ A 공장이 같은 업종이 밀집하는 곳으로의 이동을 결정한 것은 원료 등을 공동 구입하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24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작가들과 달리 현대의 많은 작가들은 자신이 인식하고 해석한 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중, M.C. 에서는 기하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자기만의 새로운 인식을 표현한 작가이다.

에서는 먼저 ‘평면의 규칙적 분할’을 활용하여 2차원의 평면 구조를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우선 그는 새, 물고기 등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단순화하여 평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형태로 설정했다. 이것을 반복하여, 상하 좌우로 평행 이동시키거나 한 지점을 축으로 다양한 각도로 회전시키기도 하고, 평행 이동한 후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사시키기도 하면서 분할된 평면을 빈틈없이 채웠다. 또한 기본 형태를 점점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평면을 무한히 분할하는 듯한 효과를 주어 평면이 가진 무한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때 인접한 기본 형태들은 명도 대비\*를 이루며 윤곽선을 공유하면서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물의 형태를 인지



<대칭 105>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물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그 윤곽선의 밖을 배경으로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서의 작품 ㉠ <대칭 105>에서는 평행 이동하는 형태들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흰 말을 사물의 형태로 인지할 경우 다른 색의 말은 사물이 아닌 배경으로 인식되고, 반대로 다른 색의 말을 사물의 형태로 인지할 경우 흰 말은 배경으로 인식된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들이 배경이나 사물로 인식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선택에 의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어떠한 형태도 배경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평면 분할에서 나아가 3차원의 형태인 원통이나 원뿔, 구의 표면을 평면 분할 기법을 적용하여 분할하기도 하고, 이를 다시 평면으로 그려낸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작품 안에서 평면과 공간을 넘나드는 순환 체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2차원의 평면 분할에 활용된 기본 형태를 3차원의 실제 사물처럼 입체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하고, 이를 다시 평면의 기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에서의 작품에 사용된 평면의 규칙적 분할은 현재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으며, 차원을 넘나들며 순환하는 환상적 공간 구성은 영화 및 광고 매체의 중요한 모티프로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에서의 작품 세계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명도 대비: 밝기가 다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밝은색은 더 밝게, 어두운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

24. <보기>는 에서의 작품과 이에 대한 작가의 말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작가의 말 -

“자신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한 마리 도마뱀이 스케치북에서 빠져나와 삶을 시작합니다. 도마뱀은 두꺼운 책, 미끄러운 삼각자, 정십이면체 등을 거쳐 평면의 세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 ① 작품 속 스케치북에 표현된 도마뱀의 형태를 보니, 구체적인 사물을 단순화하여 기본 형태로 활용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② 평면에 그려진 도마뱀이 실제 도마뱀처럼 입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니,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③ 반복되는 도마뱀 형태들에 의해 작품 속 스케치북의 일부가 규칙적으로 분할된 것을 보니, 평면의 구조를 표현하려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④ 3차원의 형태로 표현되었던 도마뱀이 다시 2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평면과 공간을 넘나드는 순환 체계를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⑤ 명도 대비를 이루는 도마뱀 형태들이 윤곽선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밝은색 도마뱀을 배경보다는 사물로 인식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제시된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프랙털 이론’이란 부분의 구조가 전체의 구조와 동일함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론이다. 예를 들어 번개는 언뜻 보면 그 형태가 불규칙해 보이지만,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번개의 전체 모습과 뻗어 나간 가지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서로 닮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학자들은 이것을 ‘프랙털 구조’라고 하며 하나의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어 나타나는 ‘자기 복제’의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 ① ㉠은 무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차이가 있군.
- ② ㉠은 기본 형태가 축소되고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차이가 있군.
- ③ ㉠은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유사하군.
- ④ ㉠은 기본으로 삼은 어떤 형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유사하군.
- ⑤ ㉠은 작품 전체의 형태가 기본 형태와 닮았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유사하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입(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